

"남북여성 교류로 통일 밑거름" 다짐

도쿄 '아시아 평화와 여성역할' 심포지엄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일본 도쿄 립우드호텔 사니홀에서 열린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 심포지엄에 참석한 남북한 여성대표 6명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사는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는 데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일본 여성계 인사, 일본 거주 재일동포 등 4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심포지엄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희생된 한국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한 일본 여성계 발기인 대표인 도이 사회당 당수는 인사말을 통해 "동서

국 식민지배 당시 한국인 여성을 애국봉사대 여자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연행해와 매춘행위를 강요한 것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보다도 더 질나쁜 행위"라고 지적하고 일본정부에 △정신대 진상조사와 공식사과 △피해보상 △위령비 건립 △역사교과서에 이 사실을 기록해 전후세대에 가르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북쪽 대표의 한 사람인 이연화 조선대외문화협력회 지도원은 "남북한의 여성과 일본 여성이 하나가 열로, 열이 1백이 되듯이 힘을 합해 분단극복과 통일을 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정신대 문제를 연구중인

전개 등을 촉구했다.

또한 이 위원은 "빠른 시일안에 서울에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이란 주제로 남북한, 일본 여성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열 것"을 제안,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일본의 국제평론가 기타자와 요코는 △북한과 조선의 국교정상화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대해 일본 여성들이 지원하자면서 "일본이 경제 강대국으로서의 자만심을 버리고 풍부한 생활을 희생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질 때 아시아의 평화를 이루는 진정한 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한대표 이효재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은 '분단상황 아래서의 남북여성이 겪는 질곡의

'한인 정신대' 일본 공식사과등 요구

"빠른시일내 서울서 만나자" 제안에 박수

전구조의 종결로 구미에선 새 시대가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아시아의 냉전구조 해결은 두세걸음 더지고 있다. 한반도를 식민지화했던 일본이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사죄하고 남북과 진실한 화해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심포지엄을 출발점으로 삼아 호교류를 실시, 결실을 이루는 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발제를 한 일본 국제문제 평가 우쓰미 아야코는 일제가 민지배 당시 한국인을 군속으로 강제연행해와 패전 뒤 전범으로 처형한 사실 등 과거의 역사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 정부는 한국식민지배를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제 식민지배로 인한 정신대 해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윤정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대협) 공동대표는 "일본이 한

일본여성사 연구가 스즈키 유코는 "정신대 문제, 일본의 전황제를 비롯해 일본이 남북에 끼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일본 여성의 문제로 나누어 갖자"고 호소,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북한쪽 대표의 한 사람인 정명순 월간 <조선여성> 논설위원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통일을 위해 서로 대화하고 자주 접촉해 남북 통일을 이뤄야 한다. 이번 만남이 첫 걸음 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한쪽 대표인 이우정 신민당 수석최고위원은 △남북여성 이 평화교류를 위한 모임을 자주 갖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핵·군축운동 전개 △남북 모두 교과서에 담긴 군사주의 정신을 평화공존의 정신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수정 △남북분단의 극복을 위해 '서로 바로 알기 운동'의

삶을 지적하고, "모든 계층의 여성이 사상과 종교를 초월, 민족 통일을 위해 화해와 단합을 이뤄야 민족의 영원인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이 끝난 뒤 남북한, 일본 대표 등이 채택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고, 남북한 여성대표 6명, 일본 여성대표 8명 등 14명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을 목이 메어 불렀다. 객석에 있던 4백여명의 청중도 함께 손뼉을 치며 합창을 했다. 분단 46년만에 비록 제3국 일본에서이긴 했지만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남북여성의 만남은 여성의 힘이 통일을 앞당기는 탄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도쿄=신연숙 특파원>